

여수시 현안사업 국가계획 반영·국고 예산 확보 총력전

정기명 시장 국토부·기재부 방문 국도17호선 확장·이순신대교 승격 세계섬박람회 예산 증액 등 요구

여수시가 지역 현안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여수시는 정기명 시장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여수세계섬박람회 기반 마련과 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기명 시장은 "제6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이 이달 말 확정됨에 따라 도로 관련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에 앞서 섬박람회의 원활한 개최 준비를 위해 이뤄졌다. 정기명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주종완 도로국장을 만나

▲제6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 국도17호선 확장사업 반영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위한 '제2차 국가지도망 종합계획'(2021-2030) 변경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 등을 요청했다.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우두리 국도 17호선의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사업은 돌산 지역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와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민뿐 아니라 관광객의 오랜 염원으로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지켜오고 임기 초부터 공을 들여온 만큼 관광-레저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순신 대교의 국도 승격 건의는 여수와 광양국가산단 진출입도로인 이순신대교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해소를 추진했다. 또 고속도로 노선 없어 국도 및 지방도에 의존하고 있

는 가운데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정기명 시장은 유수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과 범진완 행정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섬박람회 선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정기명 시장은 올해 세계섬박람회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박람회장 기반 조성공사, 회장 운영, 국제행사 홍보 등을 위한 국비 64억원 중 미확보된 55억원 전액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기명 시장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이동권 증진을 위한 도로 사업과 여수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역점 사업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계획 반영이 필요하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수시 방문, 정계 인사들과 긴밀한 협력 구축 등 밭 밟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정기명(왼쪽 세번째) 여수시장이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구례 섬진강수달생태공원서 미디어파사드 작품 만나보세요

3D 입체 캐릭터에 이야기 입혀 건물 외벽 활용 다양한 영상 상영

구례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서 12일부터 미디어 파사드 작품(사진)을 만난다. 구례군은 이날부터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서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건물 외벽을 은막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섬진강과 수달의 상징적, 예술적 가치를 담아낸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영상을 연출한다. 관람객이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수달의 습성을 살린 개성 있는 3D 입체 캐릭터에 이야기를 입혔다. 바닥에 상영되는 영상은 관람객이 밟는 자리마다 각 요소가 반응하는 사용자 반응형 체험 기능을 탑재했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다. 수달생태공원 휴원일인 월요일에는 상영하지 않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달생태공원은 낮 시간대



에는 2345그루의 흥매화가 수놓고, 밤은 트리타적인 섬진강의 낮과 밤을 모두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12개 읍·면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

보성군이 오는 15일까지 12개 읍·면에서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를 벌인다. 지난 7일 시작한 대청소에는 보성 604개 모든 마을의 주민과 공무원, 관계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마을 안길과 공터, 도로변, 하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줍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청소에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청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내 집 앞 스스로 청소하기 등을 펼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환경 보호하며 광양 매화축제 즐겨요

축제기간 '볼런투어' 운영

광양 매화축제를 즐기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볼런투어'(볼런티어+투어)가 화제다. 광양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7일까지 매화축제 기간 '볼런투어'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볼런투어'는 자원봉사와 여행을 합친 말이다. 매화축제를 찾은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화축제장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공간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참여할 수 있다. 쓰레기봉투

와 장갑 등 준비물을 받아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 된다. 참여하면 자원봉사 1시간이 인정된다.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서 실적 확인도 할 수 있다. 다만 1365포털 미가입자는 실적이 입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박정금 광양시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관광과 자원봉사가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볼런투어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이번 광양매화축제 볼런투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색있는 여행 경험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기자 노트

명분 없는 가설텐트 단속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축제장 주변에 설치한 가설 텐트를 놓고 광양시와 주민들 간에 승강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흥겨워야 할 축제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김대수 동부취재본부장

광양 매화축제는 1997년 다압정년회 주관으로 개최했던 제1회 광양매화축제가 시작이다. 이후 2005년 상춘객 수가 25만 명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축제로서의 모습을 갖게 됐고, 광양시가 주관이 되어 매년 3월 치러지고 있다. 이제 광양매화축제는 축제 전후로 네이버 일간 검색어 1등을 할 정도로 인기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당달아 광양은 힘든 겨울나기를 하고 꽃을 피운 매화를 보기 위해 찾는 상춘객 수만 120만~150만명에 이르는 관광 명소가 됐다. 이렇다 보니 축제 기간을 전후로 해서 한 달여 동안 마을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할 수 없어 길거리 노점을 차리고 특산물이나 자체 생산한 농산물들을 팔곤 한다. 그런데 최근 광양시가 바가지요금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묵인해 왔던 노점상 가설텐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가 원칙적인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면, 주민들은 20여 년의 관행을 깬 처사에 당황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민들은 문제의 근원이 일부 주민들이 사유지

를 외부인에 빌려 주면서 높은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바가지요금이 발생한 것이라며, 건축법과 농지법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보다 이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은 길거리 좌판은 되고, 가설 텐트는 안된다는 법의 잣대도 옳지 않은 것 같아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올해 처음 도입된 임대료로 인해 입장권 매표소와 상품권 교환소에 공무원 인력이 대거 투입됐는데, 이곳에 투입된 인력으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구성했다면 애초에 이런 갈등도 없었을 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축제와 달리 광양매화축제는 마을 전체를 축제장으로 제공하지만 보상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주민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공개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바가지요금 점검팀은 꾸리지 않은 채 가설텐트 단속에만 여념이 없는 시의 태도에 주민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운영하고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광양매화축제가 돈으로 가능할 수 없을 만큼 광양을 홍보하는 데 이바지해 왔고, 30년 가깝게 광양시와 마을 주민이 상상해왔던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 /kds@kwangju.co.kr

순천시 도심 공터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확대

2011년부터 121곳 1924면 조성

순천시가 공터를 활용하여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순천시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 공터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면제 주는 사업이다.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은 지난 2011년부터 조성되고 있다. 현재까지 오전동, 연향동, 신대지구 등 총 121개소 1924면을 조성했다. 이 공간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1면당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지만, 공유 주차장은 1면당 50만원이면 조성 가능해 많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또 순천시는 경작하거나 생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도심 공터에 공유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정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도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덕분에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자율 주차장 조성 사업은 순천시 교통관리과(061-749-4899)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심 내 공터를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주민자율 공유 주차장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 미역부산물 3년간 80억원 어치 일본 수출길 오른다

시장개척단 일본 식품업체와 협약

앞으로 3년간 80억원 상당의 고흥 미역부산물이 일본에 수출된다. 고흥군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고흥 미역부산물 600만달러 수출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공영민 고흥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수산물 일본 시장 수출개척단'은 일본 (주)롭슨, 고흥군 수협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3년간 600만달러 상당 미역부산물이 일본에 수출된다. (주)롭슨은 일본 도쿄에 소재를 둔 중간식품 원료 가공 수입업체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300억원으로, 고흥 미역부산물을 수입해 친환경 도시락 용기 제작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고흥군은 미역 채취과정에서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뿌리, 줄기 등 미역부산물의 활용 방안을 찾아왔다. 미역부산물은 가공업체 식품 원료와 전복 치패사로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바다에 버려지는 미역 줄기 재활용은 어민 소득을 높이고 바다 환경까지 살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공영민(가운데) 고흥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수산물 일본 시장 수출개척단'이 일본 도쿄를 찾아 미역부산물 600만달러를 수출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부산물 자원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양식어장 정화, 불가사리 구제 등 다양한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 군수는 "이번 고흥 미역부산물 수출협약이 미역양식 어가들의 새로운 부가치 창출로 어민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흥군은 농수산물을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상품·소득 자원을 만들어 신규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SNS 서포터즈 모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오는 17일까지 광양경제청 및 입주기업의 소식을 SNS를 통해 홍보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인원은 4명으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에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1995년~2004년에 출생한 20대 중 자신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0개월 간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광양경제청의 다양한 행사, 시책, 입주기업 등을 소개하고 광양만권의 볼거리, 먹거리 등 정주여건을 직접 취재해 제작

한 콘텐츠를 개인 SNS와 광양경제청 SNS에 게시하게 된다. 채택된 콘텐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GFEZ SNS 서포터즈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광양경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SNS서포터즈는 광양경제청과 입주기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홍보해 지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